

전주형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

시, 전국 지자체 최초 사업 시행... 4월 15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전주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흔들리는 전주지역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전주형 퇴직연금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시는 28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장기적인 고용유지를 돕고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지자체 최초로 도입되는 '전주형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사업(이하 전주형 퇴직연금)'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전주형 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 숙련 노동자들의 장기적인 유인책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사업주와 종사자, 전주시가 각각 일정금액을 적립해 연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전주형 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 속련 노동자들의 장기적인 유인책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사업주와 종사자, 전주시가 각각 일정금액을 적립해 연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금 기금제도에 가입 예정인 30인 이하 제조업 중소기업의 2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계좌에 연금 외의 기업, 근로자가 매달 각각 5만 원씩 추가 적립하면 전주시가 매달 5만 원씩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3차년에 걸쳐 200명씩 총 600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추후 예산을 확보해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30인 이하 제조업 분야의 재직자 200명에 대해 우선 시행한 뒤,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점차 지원 대상 및 업종 분야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시는 전주형 퇴직연금제도가 정착되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해 기업·근로자·지자체가 합심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해고 없는 도시' 상생협약을 선언한 데 이어,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회적 약속 이행으로 튼튼한 고용안정망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 앞서 시는 '해고 없는 도시' 상생협약에 참여한 중소기업인연합회 등 전주지역 중소기업들과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 고용 안정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청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검토해왔다.

지난해 12월 전주지역 중소기업 대표와 근로자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주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가 참여 의향 의사를 밝혔으며, 93% 이상이 '장기 재직 유도 효과가 기대된다'고 응답했다. 87%는 전주시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금제도'의 가입을 유지하겠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일자리는 개인과 가정, 지역을 지키는 일종의 사회적 방파제라. 방파제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삶의 터전도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이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중소기업 종사자 퇴직연금 지원 등 고용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과감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누리집(www.jonju.go.kr)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1-2359)로 문의하면 된다.

이제 앞서 시는 '해고 없는 도시' 상생협약에 참여한 중소기업인연합회 등 전주지역 중소기업들과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 고용 안정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청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검토해왔다.

지난해 12월 전주지역 중소기업 대표와 근로자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주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가 참여 의향 의사를 밝혔으며, 93% 이상이 '장기 재직 유도 효과가 기대된다'고 응답했다. 87%는 전주시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금제도'의 가입을 유지하겠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일자리는 개인과 가정, 지역을 지키는 일종의 사회적 방파제라. 방파제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삶의 터전도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이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중소기업 종사자 퇴직연금 지원 등 고용유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과감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누리집(www.jonju.go.kr)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1-2359)로 문의하면 된다.

이제 앞서 시는 '해고 없는 도시' 상생협약에 참여한 중소기업인연합회 등 전주지역 중소기업들과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 고용 안정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청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검토해왔다.

지난해 12월 전주지역 중소기업 대표와 근로자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주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가 참여 의향 의사를 밝혔으며, 93% 이상이 '장기 재직 유도 효과가 기대된다'고 응답했다. 87%는 전주시의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금제도'의 가입을 유지하겠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전주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전주시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한 '2022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은 장애인의 지속적인 평생교육을 보장하고, 이들이 지역 내 다양한 공간에서 사회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으로, 이번 공모에는 전주시를 포함

한 전국 13개 도시가 신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총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발달장애인 치유농장과 접목한 치유체험프로그램 연계 및 치유문화 확산을 위한 전주형 특화프로그램,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사업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프로그램 △장애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의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또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장애인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협력, 지속적 운영을 위한 관리기반 확보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과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민선5기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장애인평생학습법 제정에 앞서 장애인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해 고용과 복지가 지 연계한 장애인 평생학습치유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도심빈집 주민공간 조성사업 추진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심 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2억 8000만 원을 투입해 도심 내 빈집 14곳을 임대주택이나 주차장, 텃밭 등 주민 편의시설로 만드는 '도심빈집 주민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이번 사업은 오랫동안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공용텃밭, 주차장 등으로 정비하는 것이 핵심으로, 시는 이날 중 빈집 소유주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는 정비된 주차장이나 텃밭, 텃밭 등을 지역주민 소통공간으로 3년 이상 개방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 5년 이상 개방 예정으로, 학생이나 저소득층 등을 위해 주변 시세의 반값에 빌려줄 계획이다. 시는 오는 8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뒤 9월 중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전주한옥마을서 열린 흥겨운 '비빔 퍼포먼스'

지역 청년 무용수들, 비빔춤 추며 행진 펼쳐

전주지역 청년 무용수들이 전주의 대표음식인 '비빔밥'의 재료로 분장해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여행객과 비빔춤을 펼쳤다.

전주시는 지난 20일과 26일 이틀간 전주지역 청년무용수들이 남천교와 은행로, 태조로 등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비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년무용수들은 전주시립국악단 연주곡인 '한바탕 전주' (천정완 작사, 김백찬 작곡, 김민영 노래)에 맞춰 비빔춤을 추면서 행진을 펼쳤다.

비빔 퍼레이드는 한복차림의 각시탈과 방상시탈, 민복차림의 패랭이

모자를 쓴 만담꾼 등 4명을 선두로 은색 상의와 흰색 하의 차림의 '흰밥알' 캐릭터들이 노그릇 수레를 이끌었다. 또 현대식 복장에 형형색색의 갓을 쓰고 색동천을 목과 손목 허리에 휘감은 '비빔재료' 캐릭터들이 도마 수레를 타고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무용수들은 은행로와 태조로가 만나는 사거리에서는 잠시 행진을 멈춰 세우고 비빔춤을 선보였다. 이들은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방상시탈의 '익스트림' △밥알 캐릭터의 '스트릿댄스' △비빔 캐릭터의 '발레' △만담꾼들의 '현대무용' 등 뮤지컬을 연상하는 복합 안무를 선보여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비빔춤'을 개발한 오혜룡 포스댄스컴퍼니 대표는 "대형 놀이동산에서 관광객들과 호흡하는 거리 퍼레이드 영감을 받아 전주에서 최적이인 한옥마을을 배경으로 관광객을 위한 비빔퍼레이드를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주지역 청년 무용수들이 전주의 대표음식인 '비빔밥'의 재료로 분장해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여행객과 비빔춤을 펼쳤다.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 위촉

전주시의원·전주시·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전환교육 활동가·학부모 대표 등 15명

전주시와 전주교육지원청, 시민사회단체가 전주지역 청소년들이 꿈을 스스로 찾고, 함께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야호교육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주시는 지난 25일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완산구 현무1길 31-5)에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현과 인재양성을 위해 센터를 이끌어갈 운영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전주시는 지난 25일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현과 인재양성을 위해 센터를 이끌어갈 운영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삶이 중시되고 창의적인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주시와 전주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연대해 만든 풀뿌리 교육자치기관으로, 지난해 11월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인재육성재단 산하에 전북지역 최초의 교육중간지원조직으로 설치됐다.

시는 이날 센터 운영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센터 운영위원은 전주시의원장과 전주시 기획조정국장,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교수, 교육전문가, 거버넌스 활동가, 마을교육공동체 활동가, 청소년교육활동가, 학교 교사, 학부모 등 15인으로 구성됐다.

야호교육통합지원센터는 향후 교육

청, 지자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전주의 교육을 통합적으로 고민하고 소통하는 교육 플랫폼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에는 전주지역 대부분의 교육현장과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는 '전주교육포털'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원클릭 교육시스템이 가동되면 청소년, 학부모, 교사, 마을교육활동가 등 많은 시민이 전주의 다양한 교육 인프라에 쉽게 접근해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야호교육지원센터는 또 전주의 가치와 비전을 담아 △학교와 마을을 잇는

전주다움 교육 △차지와 참여로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고, 아동 청소년들의 대안적 삶을 구현하기 위한 전환교육 정책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시 야호교육지원센터 관계자는 "모든 시민은 학습자이고, 모든 학습자는 배움의 권리를 갖는다. 또 온 마을이 배움터이고 모든 시민이 교사"라며 "전주의 모든 교육 주체가 협력해 아동 청소년들의 삶이 중시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도시 전주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